전세계 언론이 놀랐다 | “한국 2-0 승리 실화냐?”

“작년엔 대통령 밀어내더니, 올해는 독일을 밀어냈다”

-美 라디오 프로그램

한눈에 보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8일 23시 현재 (한국시간)

일정	조	경기	비고/시간
15일 (금)	A	5 러시아–사우디 0	(러시아) 가진스키 전12분, 체리셰프 전43분 · 후46분, 주바 후26분, 골로빈 후50분
	A	0 이집트–우루과이 1	(우루과이) 히메네스 후44분
16일 (토)	B	0 모로코–이란 1	(모로코) 부하두즈 후50분–자책골
	B	3 포르투갈–스페인 3	(포르투갈) 호날두 전4분–PK · 44분, 후43분 (스페인) 코스타 전24 · 후10분, 나초 후13분
	C	2 프랑스–호주 1	(프랑스) 그리즈만 후13분–PK (호주) 예디낙 후17분–PK, 베히치 후35분–자책골
	D	1 아르헨–아이슬란드 1	(아르헨) 아구에로 전19분 (아이슬란드) 핀보가손 전23분
17일 (일)	C	0 페루–덴마크 1	(덴마크) 퓔센 후14분
	D	2 크로아–나이지 0	(크로아) 모드리치 후26분–PK (나이지) 오쿠헤네카로 전32분–자책골
	E	0 코스타–세르비아 1	(세르비아) 콜라로프 후11분
18일 (월)	F	0 독일–멕시코 1	(멕시코) 로사노 전35분
	E	1 브라질–스위스 1	(브라질) 쿠티뉴 전20분 (스위스) 주버 후5분
	F	1 스웨덴–한국 0	(스웨덴) 그란크비스트 후20분–PK
19일 (화)	G	3 벨기에–파나마 0	(벨기에) 메르텐스 후2분, 루카쿠 후24분 · 30분
	G	1 튀니지–잉글랜드 2	(튀니지) 사씨 전35분–PK (잉글랜드) 케인 전11분 · 후47분
	H	1 콜롬비아–일본 2	(콜롬비아) 퀸테로 전39분 (일본) 가가와 전6분–PK, 오사코 후28분
20일 (수)	H	1 폴란드–세네갈 2	(폴란드) 시오넥 전37분–자책골, 크리호비악 후41분 (세네갈) 니앙 후15분
	A	3 러시아–이집트 1	(러시아) 체리셰프 후14분, 주바 후17분 (이집트) 파티 후2분–자책골, 살라 후28분–PK
	B	1 포르투갈–모로코 0	(포르투갈) 호날두 전4분
21일 (목)	A	1 우루과이–사우디 0	(우루과이) 수아레스 전23분
	B	0 이란–스페인 1	(스페인) 코스타 후9분
	C	1 덴마크–호주 1	(덴마크) 에릭센 전7분 (호주) 예디낙 전38분–PK
22일 (금)	C	1 프랑스–페루 0	(프랑스) 음바페 전34분
	D	0 아르헨–크로아 3	(크로아) 레비치 후8분, 모드리치 후35분, 라키티치 후48분
	E	2 브라질–코스타 0	(브라질) 쿠티뉴 후46분, 네이마르 후52분
23일 (토)	D	2 나이지–아이슬란드 0	(나이지) 무사 후4 · 30분
	E	1 세르비아–스위스 2	(세르비아) 미트로비치 전5분 (스위스) 샤카 후7분, 샤키리 후45분
	G	5 벨기에–튀니지 2	(벨기에) 아자르 전6분–PK · 후6분, 루카쿠 전16 · 전48분, 바추아이 후45분 (튀니지) 브론 전18분, 카즈리 후48분
24일 (일)	F	1 한국–멕시코 2	(한국) 손흥민 후 48분 (멕시코) 벨라 전26분–PK, 에르난데스 후21분
	F	2 독일–스웨덴 1	(독일) 로이스 후3분, 크로스 후50분 (스웨덴) 토이보넨 전32분
	G	6 잉글랜드–파나마 1	(잉글랜드) 스톤스 전8 · 40분, 케인 전22분–PK · 전46분–PK · 후17분, 리가드 전36분 (파나마) 발로이 후33분
25일 (월)	H	2 일본–세네갈 2	(일본) 이누이 전34분, 혼다 후33분 (세네갈) 마네 전11분, 와구에 후26분
	H	0 폴란드–콜롬비아 3	(콜롬비아) 미나 전40분, 팔카오 후 25분, 콰드라도 후30분
	A	3 우루과이–러시아 0	(우루과이) 수아레스 전10분, 카버니 후45분 (러시아) 체리셰프 전23분–자책골
	A	2 사우디–이집트 1	(사우디) 살만 전51분–PK, 살렘 후50분 (이집트) 살라 전22분
26일 (화)	B	2 스페인–모로코 2	(스페인) 이스코 전19분, 아스파스 후46분 (모로코) 부타이브 전14분, 엔 네시리 후36분
	B	1 이란–포르투갈 1	(이란) 카림 후48분–PK (포르투갈) 콰레스마 전45분
	C	0 호주–페루 2	(페루) 카리요 전18분, 게레로 후5분
	C	0 덴마크–프랑스 0	
27일 (수)	D	1 나이지–아르헨 2	(나이지) 모제스 후6분–PK (아르헨) 메시 전14분, 로호 후41분
	D	1 아이슬란드–크로아 2	(아이슬란드) 시구르드손 후31분–PK (크로아) 바델리 후8분, 페리시치 후46분
	F	2 한국–독일 0	(한국) 김영권 후48분, 손흥민 후51분
	F	0 멕시코–스웨덴 3	(멕시코) 알바레스 후29분–자책골 (스웨덴) 아구스틴손 후5분, 그란크비스트 후17분
28일 (목)	E	0 세르비아–브라질 2	(브라질) 파울리뉴 전36분, 실바 후23분
	E	2 스위스–코스타 2	(스위스) 제마일리 전31분, 드르미치 후43분, 좀머 후48분–자책골 (코스타리카) 왓슨 후11분
	H	일본–폴란드	23:00
	H	세네갈–콜롬비아	23:00
29일 (금)	G	파나마–튀니지	03:00
	G	잉글랜드–벨기에	03:00

英 BBC “한국팬 자랑스러워할 경기”
브라질 언론 “아하하하하” 獨 조롱

한국 승리에 전 세계가 놀랐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아레나에서 끝난 2018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1위인 독일축구대표팀에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2패(승점3)를 기록하며 F조 3위에 머문 한국은 비록 목표로 했던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의 승리에 주목했다. 미국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은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홈페이지 메인에 붉은색으로 ‘브레이킹뉴스(속보)’ 표기를 붙여 ‘한국이 독일을 (월드컵에서) 퇴장시켜 버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김영권, 손흥민의 골이 독일을 F조 나락(최하위)으로 떨어뜨렸다. 독일은 러시아월드컵 기간 내내 혼란스러운 경기를 펼쳤다”고 독일의 부진을 꼬집었다.

독일 16강 탈락을 조롱하고 있는 폭스스포츠 브라질 트위터.

영국 BBC는 “FIFA랭킹 57위의 한국은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 만큼 기뻐했다. 기억할만한 승리다.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한국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경기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브라질은 독일의 패배가 기분 좋은 국가 중 하나다. 브라질은 지난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1-7의 대패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독일의 탈락이 확정되자 폭스스포츠 브라질은 트위터에 ‘AHAHAHAHAHAHAHAHA(아하하하하하하하).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에 1-7로 패한 뒤 4년간 조롱을 당했다. 이제는 어깨를 펼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겨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작년에 대통령을 밀어내더니 올해에는 독일을 밀어냈다”라고 말했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중국 등도 한국의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한국은 권창훈, 염기훈 등이 부상으로 빠져 베스트 라인업을 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도했고, 중국 신화통신은 “엄청난 일이다! 2014년 월드컵 챔피언 독일이 한국에 져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

반면 패한 독일은 F조 4위가 되면서 자존심을 제대로 구겼다.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다.

독일 축구팬들 못지않게 언론도 큰 충격을 받았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한국 전 패배는 악몽이다. 독일의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불명예다”라고 패배를 아쉬워했다. 독일 축구매체인 키커는 “역사적인 패배다. 독일 축구는 사라졌다”며 “독일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테스트 해야 한다. 뢰브 감독도 포함해서다”라고 ‘명장’ 요하임 뢰브 감독의 능력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키커는 뢰브 감독의 유임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 응답이 무려 76%에 이르렀다. 무려 12년간 팀을 맡아온 명장의 위상을 흔들어 버릴 만큼 한국전 패배는 독일에게 큰 충격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한국이 세계 축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1%’라고 꼬집었던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의 승리 소식을 보도하며 찬사하고 있다. 독일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운데)가 28일(한국시간) 끝난 한국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한국 김영권에게 실점한 뒤 처량하게 볼을 지켜보고 있다. 카잔(러시아) | AP뉴시스

1 제2 클로제 부재 2 식은 열정 3 와해된 팀워크…예견된 ‘전차군단’ 몰락

독일 언론들이 분석한 패인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 2018러시아월드컵 개막 전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28일(한국시간) 끝난 F조 조별리그 한국과의 3차전에서 0-2로 패해 조 4위에 그쳤다. 독일 언론들이 짚은 문제점을 돌아봤다.

●제2의 클로제, 람의 부재

일찍이 거론된 사안이다. 미로슬라프 클로제(40)와 필립 람(34)의 후계자를 찾는 문제는 2014브라질월드컵 이후 계속 제기된 것이었다. ‘제2의 공격수’ 부재는 골 결정력에 문제를 야기했고, 람과 같은 수비수의 부재는 역습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났다. 강력한 미드필더진을 바탕으로 뿜어냈던 화력도 3월 스페인과의 친선전부터 월드컵조별예선까지 7경기에서 단 6득점(경기당 0.86골)으로 골 가뭄이 지속됐다. 반대로 수비에선 경기마다 역습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비불안을 노출하기도 했다.

●브라질때보다 더 무뎌진 전력

독일의 선수구성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스쿼드였다. 하지만 그들은 4년전 브라질 대회 때보다 많이 무뎌져있었다. 월드컵을 준비하기 전 많은 전략과 전술을 실험했음에도 요아힘 뢰브(58) 감독은 지난 브라질 대회 때 꾸렸던 선수들을 중용했다. 독일 언론 ‘타케스슈피겔’은 “지난번보다 퇴보돼 있었고, 신선함을 주지 못했다. 그라운드의 열정이 없는 것 같았다”며 맹렬히 비난 했다.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던 토마스 뮐러(뮌헨)나 메수트 외질(아스널) 등 주요 선수들은 예선부터 부진했고, 주목받았던 율리안 드락슬러(파리생제르망)도 부진을 거듭했다.

●무너진 팀워크, 축구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닌 팀이다’라는 독일의 슬로건도 이제 옛말이다. 월드컵 전부터 독일의 팀워크는 와해되었다고 해도 무방했다. 외질과 일칼리 귄도간(멘체스터시티)의 에르도간 대통령을 향한 지지표명은 이미 독일에서 큰 이슈였다. 터키계 이민자들이 많은 독일로선 분열의 소지가 다분했다. 월드컵 전부터 외질과 귄도간은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까지 야유를 들으며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면도 노출됐다. 독일 저널지 원풋볼에서 진행한 ‘왜 독일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을까’라는 설문조사에서도 ‘독일이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독일이지만 난민문제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며 급격히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고, 이를 축구에 결부시키며 팬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손흥민 대신 입대” 멕시코에 부는 ‘축구 한류’

손흥민 다큐 방송·손흥민 갈비 판매
멕시코 16강행…한국에 고마움 표현

“Gracias, Korea!(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은 28일(한국시간) 끝난 독일과의 F조 최종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같은 시간 열린 멕시코-스웨덴전이 멕시코의 승리로 끝났다면 16강에 오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멕시코가 스웨덴에 0-3으로 완패하며 한국은 F조 3위로 탈락했다.

멕시코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일 세간의 예상대로 독일이 한국을 눌렀다면 멕시코는 3위로 내려앉았다. 독일을 누르고 이변을 만든 한국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멕시코에는 깜짝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CNN’,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등 영미권 유력지는 일제히 멕시코 현지인들의 ‘한류’를 조명했다.

CNN에 따르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상일 대사 명의로 “한국은 멕시코의 2018러시아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멕시코인들은 이 글을 퍼가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독일을 주제로 각종 패러디를 SNS에 게재하고 있다. “손흥민 대신 입대하겠다”는 멕시코 팬이 나올 정도다.

멕시코는 29일(한국시간) 끝난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3으로 패했지만, 한국이 독일에 승리하면서 간신히 16강에 올랐다. 멕시코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태극기를 앞에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 교민과 멕시코 현지인들. 멕시코시티(멕시코) | AP뉴시스

이들의 움직임은 온라인에 머물지 않았다. 멕시코 팬들은 국가적 축제 때면 보통 수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광장에 집결한다. 한국의 광화문광장과 비슷한 곳이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김상일 대사와 한병진 총영사를 둘러싸 목마를 태우는 등 고마움을 전했다. 한때 대사관 업무가 마비됐을 만큼 수백 명의 인파가 광란을 빚었다. 멕시코 최대 방송사 ‘텔레비사’는 손흥민의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는 등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저었다.

마케팅에도 한국이 등장했다. 일부 식당은 ‘서울 수프’, ‘손흥민 갈빗살’ 등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메뉴를 판매했다.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에 따르면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 항공사의 멕시코행 항공편을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